

MARCH 1998



#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The Newsletter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발행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36-70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신과 TEL: 920-5354 FAX: 923-3507  
발행인: 박 동 일 / 편집인: 연 병 길 / 등록번호 제 2-124 호 / 인쇄인: 김 영 길 / 인쇄처: 알뜰 중앙 인쇄사 TEL: 717-5511 (대) FAX: 717-5515

## 권 두 인

### 老人과 瞑想

李 正 浩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부회장)

젊어서는 성욕, 중년이 되어서는 탐욕, 그리고 늙어서는 명예욕이란 말이 있듯이 인간은 욕심 때문에 하루도 편안할 날 없이 살다가 죽는다. 불결에 보면 인간이 가진 세가지의 장애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인간들은 욕심 때문에 이를 모르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적혀있다. 인간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볼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세가지의 얽이 무엇인가? 첫째는 Karma Abarna이다. 이는 쓸데없는 행위로 인해서 생명을 보지 못함을 말한다. 인간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는 이것을 달성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쓴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는다. 둘째는 Krasha Abarna라고 하는데 번뇌장이라고도 한다. 인간은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아무 결론 없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셋째는 Znana Abarna라고 하는데 일방 지식의 장이라고 불리운다. 인간은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식지우환이란 말이 있듯이 인간들은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아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많은 욕심과 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하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늙으면 시력을 저하시켜 대중보고 넘어가게 하고, 청력을 저하시켜서 대중 듣고 넘어가게 하고, 맛 감각을 둔하게 하여 대중 먹게 하였으며, 기력을 저하시켜서 조금 조용히 있게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하는 것들은 이와는 반대가 아닌가. 노인이 되어서 젊은이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지 하나, 조용히 가만있는 것이며, 봐도 못본체, 들어도 못들은체,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지 않으며, 젊은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예리 프롬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통달하고 성숙해야 한다. 老人의 老字가 흙토에 큰 지팡이를 짚고 여러한 칼날과 같은 편단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노인이 될수록 명상과 같은 수행 생활을 통한 자기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갖고 조금은 여유있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명상수행의 기원은 보다 훨씬 이전부터라는 설도 있으나, Buddha, Dharma, 그리고 Sangha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 Buddha에서 기원을 찾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서 깨달음의 근원을 인식하는 것, 즉 자유로움의 인식 체형을 의미한다. Dharma란 많은 이 세상의 모든것이 자연의 순리(법칙)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Sangha에서 찾는다는 것은 공동사회에서 지지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깨달음과 자유를 위해서 상호 도와줄을 의미한다. 우리는 조용하고 격리된 상황에서 우리 자신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유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때에 화일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 자신을 발전하기 위해서 몇달동안 명상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지하고 균형잡힌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가지 태도를 소개하겠다. 첫째가 수행이다. 명상기동동안에 그 속에서 여러 번의 굴곡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때에는 아름답고 기분 좋고 통찰적이 되었다가도 어릴 때에는 괴롭고 불안하고 질망되고 의심나는 그런 시간도 있게 된다.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인고를 체험하는 것은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유명한 티벳 Yogi인 Milarepa는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서서히 서두르도록 충고했다. 여기서 서두른다는 것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행과 평온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명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침묵이다.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흩어지게 하고 에너지를 흩어지게 만드는 다용 때문에 흔히들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없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존되는 많은 에너지가 깨달음을 얻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명상수행 그 자체로서 침묵 역시 쉽게되고 이완도 될 수 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활동은 극도로 절정하게 된다. 즉 침묵은 마음을 더욱 깊은 고요속으로 이끌게 할 수 있다. 자신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자신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 우리는 모두 각각 혼자 나서 혼자 죽는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인 혼자임이 필연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고 홀로 있음으로써 자유로워진다.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마음은 강하게와 평화로워지며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합일 또는 친교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타인과의 관계가 쉬워지며 관계성이 더욱 의미있게 된다.

Osho는 명상을 소개하면서 명상이란 인간마음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탐험이라고 했다. "명상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원래의 자신이 되는 길이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행함이 없는 고요속에서 기쁨은 찾아온다." 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 젊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늙어서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는가는 더욱 중요한 일이다. 마치 어린애와 같이 사심없는 순수 상태로 되돌아간 늙은이로서 깨끗함을 유지하다가 세상을 떠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두서없는 생각을 적어본다.

##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전공의 워크숍

일 시: 1998년 4월 10일 (금) 13:00 - 18:00

장 소: 서울 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소

인사말: 광 동 일(학 회 장)

사 회: 오 병 훈(연세의대)

### 심포지움 노화와 알코올

12:30-13:00 등 록  
13:10-13:40 노인알코올리즘의 역학과 진단  
13:40-14:10 노화와 알코올의 신경생물학적 영향  
14:10-14:30 질문 및 토의  
14:30-14:50 Coffee Break

좌 장: 이 민 수(고려의대)

한 진 회(가톨릭의대)

전 진 숙(고신의대)

14:50-15:20 알코올과 인지기능  
15:20-15:50 노인알코올리즘의 신체적합병증  
15:50-16:20 노인알코올리즘의 치료  
16:20-16:40 질문 및 토의  
16:40-17:00 Coffee Break

좌 장: 기 백 석(중앙의대)

최 인 근(한림의대)

조 경 환(고려의대)

최 용 성(성안드레이신경정신병원)

### 연제발표

사 회: 김 창 현(국립의료원), 좌 장: 조 맹 제(서울의대)

17:00-17:15 인지기능검사의 진단예측도  
17:15-17:30 한국에서 노인용 미시건알코올의존선별검사의 적응을 위한 예비연구  
17:30-17:45 노인성우울장애환자의 자기공명영상소견  
17:45-18:00 광주군 농촌지역 노인들의 인지기능 장애에 관한 연구

박 종 한(대구효성가톨릭의대)

전 진 숙(고신의대)

좌 장: 정 인 과(고려의대)

김 창 현(국립의료원)

오 병 훈(연세의대)

### 전공의 워크숍 노인정신약물학

사 회: 전 진 숙(고신의대), 좌 장: 이 철(가톨릭의대)

09:00-09:30 정신병의 약물치료  
09:30-10:00 기분장애의 약물치료  
10:00-10:20 질문 및 토의  
10:20-10:40 Coffee Break

이 중 범(영남의대)

이 상 익(충북의대)

10:40-11:10 신경증적장애의 약물치료  
11:10-11:40 인지장애의 약물치료  
11:40-12:00 질문 및 토의

좌 장: 연 병 길(한림의대)

김 영 철(이화의대)

정 은 기(국립서울정신병원)

## • 총무부 소식 •

1. 1997년 12월 22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방년회가 동화반점에서 열렸습니다.
2. 1998년 1월 14일 '98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차 임원회가 신라호텔 아리아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98년도 기획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3. 1998년 2월 18일 '98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차 임원회가 신라호텔 Parkview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98년도 기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4. 알코올리즘 치료제인 Naltrexone을 의료보험 인정약품으로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 학술부 소식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집담회

- 일 시 : 1998년 3월 13일(금) 오후 4시~6시
- 장 소 : 대구효성기독교대 회의실

#### 〔학술집담회 일정〕

|                 |                        |                    |
|-----------------|------------------------|--------------------|
| 4 : 00 - 4 : 10 |                        | 사 회 : 오 병 훈 (학술부장) |
| 4 : 10 - 4 : 20 |                        | 인사말 : 박 동 일 (회 장)  |
| 4 : 20 - 5 : 00 | MRI Volumetry of Brain | 박 종 한 (감 사)        |
| 5 : 00 - 5 : 40 | 노인생활의 사회학              | 고 효 진 (대전성모병원 정신과) |
| 5 : 40 - 6 : 00 | 질문 및 토의                | 박 종 우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

## • 기획부 소식 •

1. 기획부 모임
  - 일 시 : 1998년 2월 13일(금) 오전 7시
  - 장 소 : 신라호텔 Parkview
  - 안 건 : Newsletter 제 5 권 1호 편집에 관한 건, 1998년 기획부 사업 계획
2. 1998년 기획부 사업 계획
  - Newsletter 2회 발간
  - Homepage 개설
  - 노인의 날(10월 2일) 행사 참여

## • 노인정신의학 편집위원회 소식 •

- 5월 발간 예정인 노인정신의학에 많은 원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의 특징은 '노년기 기분 장애'로, 진단분류 및 역학(서울의대 조맹제), 원인론(가톨릭의대 이철), 임상 증상 및 예후(고려의대 이민수), 생물학적 치료(고려의대 정인과), 기타 치료(원광의대 박민철) 등입니다. 또한, 1999년부터는 '노인정신의학' 잡지를 구독 신청한 분에 한해서 보내드릴 계획이오니 잡지가 필요하신 분은 구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교과서 편찬위원회 소식 •

- 교과서 원고가 대부분 수집되었으며 아직 미수집된 원고는 재독촉하기로 하고 출판사와 협의하여 3월부터 교과서 편찬 작업을 시작하기로 함. '98년도 춘계학술대회시 발간할 예정임.

## • 회원 투고 •

## 이스라엘 학회를 다녀와서

배 재 남 (인하의대)

예상외로 상당히 긴장된 여행이었다. 학회 개최지가 성서의 본고장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기에 학문적인 욕구 이외에 성지순례자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도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 이후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신의 지식을 배워오고 전문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다소 들뜬 흥분보다는 일단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일순 전환하게 되었다.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시작된 해프닝(화물로 부친 여행 짐의 대부분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으로,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섭렵하고 오겠다는 야무진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첫날은 저녁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환영 리셉션만 있었기 때문에, 2시간밖에 자지 못해서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오후 늦게까지 사해와 유대인들에게 '최후의 항전지'라고 불리는 맛사다를 둘러 보았다.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이스라엘에 대한 인상은 '이런 황무지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이런 곳에서 아귀다툼하며 처절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하게만 느껴졌다.

둘째날부터 본격적인 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6~7개의 방에서 각종 심포지엄과 논문 구연들이 진행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긴장된 국내 상황이어서인지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발표자중에서도 불참한 자가 다수 있어서, 사지(死地)에 재발로 괜히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생겼다. 그러나 참석한 사람들의 토론은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어서 발표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긴장들이 말끔히 사라져 버릴 수 있었다. N. Sartorius, B Reisberg, SJ Finkel, C Katona, MF Folstein, J Yesavage 같은 대가들의 강연을 실지로 보고 듣는 느낌이란 10대소녀들이 그들의 우상에 환호하며 열광하는 기분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았다. 물론 좀더 영어를 잘 했으면 더 많이 알아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동반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논문을 구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심포지엄방보다는 논문을 구연하는 발표장에 더 많이 들어가 있었다. 다양한 인종과 같은 언어라고 하기는 정말 어색한 다양한 영어를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었다. 별 것 아닌 논문을 유창한 언어로 다소 오만하게 느껴지는 자세로 발표하는 미국인 정신과 의사, 깨끗한 정장에 산뜻한 매너,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그러나 자신감있게 열심히 발표하는 일본인 정신과 의사(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통역사까지 준비한 신중한 태도에 감탄), 어딘지 못해 보이고 안스러워보이는 동남아시아 정신과 의사, 유창하지만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어투로 발표하는 프랑스 정신과 의사 등 논문 구연장의 다양한 모습들이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예상보다는 학회 전시실의 부스가 빈약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고, 전문도서의 전시도 부족하여서 학회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리품(?)의 습득이라는 짜릿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아쉬움도 있었다. 다양한 연제들이 발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Age-associated cognitive decline(AACD) : emerging critical issue의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J Jesavage, B Resiberg, RC Peterson 같은 연자들을 거느리고(?), 또한 홀을 가득채운 청중들 앞에서 좌장으로서 당당히 심포지엄을 주관하시는 우종인 선생님의 모습은 노인정신의학을 해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기 시작한 나에게 상당히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 같았다.

피곤했던 학회일정이 끝나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시내 거리를 활기차게 다니는 젊은이들의 어깨위에 액세서리 같이 자연스럽게 걸려 있는 M16 소총(거리에서 젊은 남녀가 키스를 할 때도, 그녀의 한 손에는 예의없이 그 무서운 총이 들려 있었다), 온몸을 새까만 양복으로, 거기에는 머리에 쓴 모자마저 새까만 전통 유대인들 뒤에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처럼 서너 명의 애들이 달려서 건고 있는 모습, 밤만 되면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처음에는 테러로 경찰이 동원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빈발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앰블런스 소리였다고 한다), 지나가는 일행에게



‘일달러, 일불, 빨리빨리, 싸다’라고 외쳐대며 거머리처럼 질기게 달라붙는 아랍계 상인들의 모습 등이 성서에 나와서 유명해진 각 성지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이스라엘의 학회 일정에 덩으로 며칠동안 이집트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거기서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파라오들의 무시무시한 유적들도 돌아볼 수 있었다.

열흘 남짓한 피곤한 일정속에서, 국내의 노인정신의학회를 활발히 이끌어 나가시는 많은 선배님들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들을 보고 실제로 피부에 느낀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소중한 성과로 여겨진다. 힘든 일정속에서도 넉넉한 모습으로 일행들을 격려해주시고 자칫 예민해지기 쉬운 여행을 부드럽게 이끌어주신 유계준 선생님, 전 일정을 통해서 변함없이 적극적이고 진지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 박중환 선생님, 기백석 선생님을 비롯한 각 선배님들의 모습은 경험이 없고 미숙한 후배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

지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학회에 같이 참석했던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 • 해외 연수기

### Washington 대학에서 보낸 2년간의 생활

김 승 현 (고려의대 정신과)

미국 중서부의 Saint Louis 공항에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가족들과 함께 밤늦게 도착해서 한숨을 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 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이 지나 지금 이런 원고를 쓰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자위도 해보지만 해외연수를 떠나가기 전에 나름대로 지냈던 욕심과 돌아올 때의 심정은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인데 과연 실제로 무엇을 성취하였는가에 대한 의문과, 한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 관심분야를 지속할 수 있을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 년간 몸담고 있던 Washington 대학은 미국 동부나 서부의 유명 사립대학만큼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중서부의 흔치 않은 사립대학 중 하나로 미국 의과대학의 종합평가에서 10위 정도를 차지하는 대학이다. 애초에 관심을 기울이던 Alzheimer's Disease Research Center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Dr. Olney가 Director로 있는 정신과의 실험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Dr. Olney는 Glutamate Neurotoxicity를 처음으로 in vivo 실험에서 입증한 후 유명해진 분으로 이 후 계속해서 Glutamate Receptor System이 여러 신경정신과 질환의 중요한 병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처음 수개월간은 현재 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Project들을 지켜보면서 내 자신의 과제를 정하기로 하였지만 귀국해서 국내에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NMDA Receptor Agonist와 Antagonists의 Neuropathological Effects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는 Ultrastructural Analysis 그리고 이러한 약물들이 실험동물의 학습과 기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Head Trauma나 Ischemia에 있어서 NMDA Receptor의 역할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민 끝에 내 자신이 정한 Project는 Microdialysis Technique을 이용하여 NMDA Antagonist가 Cingulate Cortex의 Acetylcholine Outpu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주위 동료들의 시샘(?)을 받으며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하는데 육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처음 시작하는 Stereotaxic Surgery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예상과는 달리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 부딪힐 때 상새하게 의논할 만한 상대가 별로 없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다른 Department에서 Post-doc을 하고 있던 한국의 PhD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결국 일년을 더 연장하여 그나마 처음 계획했던 과제

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다. 여러면에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Neuroscience의 본 고장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많은 연구원들과 교제하면서 현재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함께 체험했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웬지 낯설게 느껴지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IMF를 걱정하며 이 원고를 맺는다.

## • 노인 정보 •

### 1998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시책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경로연금 : '98. 7월부터 지급)

- 노령수당(생활보호대상노인 247천명)
  - 65세~79세(211천명) : 35천원/인, 월
  - 80세 이상(36천명) : 50천원/인, 월
- 경로연금(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저소득노인 924천명)
  - 생활보호대상노인(247천명) : 50천원/인, 월
  - 저소득노인(677천명) : 30천원/인, 월

○ 노인건강관리 강화

- 치매요양 시설 (6→7개소) 및 노인요양시설(4→4개소) 확충
- 노인건강진단 단가 인상(3만명, 11→12천원)
- 원격치매진료정보시스템 구축(8억원)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176억원)
  - 지원대상 : 25,777 → 30,401개소
  - 운영비 : 40 → 50천원/개소, 월
  - 난방비 : 200 → 250천원/개소, 년
-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35억원)
  - 가정봉사원 양성 및 파견 사업 : 60 → 64개소
  -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 40 → 45개소
- 노인건강관리 등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확충(7 → 13개소, 87억원)

○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3개소, 56억원)

#### ■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급 ■

'98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35만명에게도 추가로 경로연금 혜택을 주고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진료기간을 연간 2백 70일에서 3백일로 한달간 늘리기로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전국민연금이 실시돼도 연금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노인중 경제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대해 국가가 경로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관심을 재고하고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했다.

지난 10월 2일 동대문운동장에서는 2만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거동 불편 노인 대상 이동목욕서비스 실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중풍이나 치매 등 장애가 있거나 외상노인 등 거동불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순회하며 이동 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

LG복지재단으로부터 이동목욕차량을 기증 받은 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운전사 등 2~3명의 이동목욕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우선 마포지역을 순회하며 이 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 및 문의는 전화 02) 365-3677로 하면 된다.

## 노인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

(출처 : <http://www.unisci.com>, '98년 1월 6일)

노인들이 잘 넘어지는 등 불안정한 이유는 자세를 교정해주는 능력과 안정성을 보살펴주는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결과 밝혀졌다. 나이가 들에 따라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일 뿐 확실하게 규명되지는 않은 것이었다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신체운동학 교수인 Sermyon M. Slobounov는 말한다. 그는 또한 자세 안정성의 역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다면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자세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force flatform'을 사용하여 표면에 가해지는 발의 압력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안정성의 기하학적 범위는 발이 놓인 위치에 의해 얻어진다. 이 연구에서 피실험자는 'force plate'에 발을 올려놓은 뒤 20초 동안 서 있었다. 이동안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측정되었다. 중력의 중심을 움직임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람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뒤로, 앞으로 양 옆으로 움직이게 된다. 또 연구진은 피실험자에게 가장 편한 6가지 자세로 요구한 후, 그들의 기능적인 안정성 범위의 한계를 결정했다. 노인들은 가능 범위를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즉 안정성 범위를 넘어설 때 넘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 연구는 1월 발표된 Journal of Gerontology : Biological Sciences에 실렸으며 나이가 들에 따라 발의 위치로부터 얻어진 기하학적 안정성 범위보다 항상 작은 기능적인 안정성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발의 위치로 정의되는 기하학적 범위가 안정성 범위를 결정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함을 말해준다.

연구진은 60세에서 99세에 이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force plate'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불행하게도 상당한 감각 이상이 나이가 들에 따라 나타난다. 연구진은 피실험자에게 눈을 감은 채로 혹은 눈을 뜬 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안정성도 감소되었다. 팔의 위치도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다. 실험은 피실험자의 팔을 앞으로 어깨높이 만큼 진행되었는데, 이때도 안정성을 감소시켰다. 가장 안좋은 경우는 눈을 감고 팔을 앞으로 올리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을 80세 이상 90세 미만의 집단과 9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상승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진은 노인들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시각이나 팔의 위치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중이다.

## • 치료 프로그램 소개 •

### 용인효자병원(노인전문병원) 소개문

한 일 우 (용인효자병원장)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들은 일반질환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체 여러 장기가 동시에

문제를 야기시키며, 비특이적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며, 약물에 대한 반응도 일반인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병의 경우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의 전문화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의 차별화 및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효율적 관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실정은 노인의학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시스템 및 복지체계가 아직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개원한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에 위치한 본 용인효자병원은 대지 3천평에 건평 4천5백평의 5층 건물로 400개의 병상을 갖고 있으며 뇌졸중(중풍)을 위시한 신경질환병동, 치매병동, 내과중환자 병동 등 질병자체와 환자가 갖고 있는 신경인지기능 및 정신증상에 따라 병동을 분리하여 이에 적합한 병동내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창 방지용 특수 침대와 무선감지 시스템을 포함하여 종합병원 내과중환자실 시설규모와 동일한 ICU, 신경인지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그리고 작업치료 시설, 신경과·내과·신경정신과적 진단장비들을 설치하여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체계적 치료전략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병원생활을 위하여 환자들의 보행을 위한 특수 시설, 휠체어가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램프 시설, 충분한 채광과 환풍시설, 자동 감응장치가 부착된 수도시설, 노인환자들의 사회성 유지를 위한 시설 및 공간, 간병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여 오락활동·회상요법·현실 오리엔테이션 요법·신경인지 재활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으로 자칫 소홀해 지기 쉬운 경향을 예방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가족 및 전문인력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용인효자병원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진단치료적 접근을 위하여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를 개설하고 사회사업실, 자원봉사실, 신경인지기능 검사실을 두고 있으며 임종을 대비한 호스피스실 등을 부설로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용인효자병원은 이러한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첫째, 환자의 수효보다는 치료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즉 노인질환에 대하여 각과별로 전문적이면서도 통합적인 평가를 한 후 독자적 생활이 가능하거나 재가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은 내과적 치료, 신경인지 재활치료, 신체 재활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 및 외부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하여 사회로 재복귀하여 새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만약 장기치료를 필요할 정도로 신체 혹은 신경정신 기능이 감퇴된 환자 특히 치매환자들의 경우에는 본 병원 옆에 새로이 건축될 예정인 경기도립노인병원과 연계하여 영양과 치료를 겸하거나 사회프로그램과 연결시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예정입니다. 둘째, 노인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치료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노인병에 대한 연구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의료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명실공히 노인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외 이러한 개발프로그램을 기초로 지역사회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전개하여 이 사회에 뿌리를 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 • 신간 안내 •

### □ Concise Guide to Geriatric Psychiatry, Second Edition

— James E. Spar, MD, and Asenath La Rue, PhD

Completely revised for DSM-IV, the second edition of this easy-to-use pocket-size reference text is an essential guide for all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rimary care physicians, and occupational and physical therapists who treat elderly patients. It includes updated and expanded treatment sections, a wealth of tables and figures that highlight important clinical material, and an appendix

with commonly used clinical assessment scales.

- 1997/304 pages/ISBN 0-88048-796-8/paperback/\$21.0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his guideline provides invaluable assistance to psychiatrists and othe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ho care for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Parkinson's disease, Lewy body disease, and Pick's disease and other frontal lobe dementias. It contains important advice on the development of an individual, long-term treatment plan that can accommodate the changing nature of these illnesses and address new issues as they arise. It outlines psychiatric management the cornerstone of the treatment of the patient with dementia and then reviews the specific psychosocial interventions and pharmacological options available. The guideline then discusses special considerations for elderly and dementia populations and describes the factors that may modify treatment decisions, including comorbid conditions, site-specific issues, and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examined.

- 1997/96 pages/ISBN 0-89042-310-5/paperback/\$22.50

□ ***Progress in Alzheimer's Disease and Similar Conditions***

– Edited by Leonard L. Heston, MD, American Psychopathological Association

Progress in Alzheimer's Disease and Similar Conditions provides medical professionals who investigate and treat brain diseases with updated research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This treasury of clinical and research expertise presents important findings in genetics, epidemiology, pathology, pharmacology, and pathophysiology.

- 1997/368 pages/ISBN 0-88048-760-7/hardcover/\$47.50

□ ***American Psychiatric Press Library of Geriatric Psychiatry(on CD-ROM)***

This important CD-ROM contains the complete, unabridged texts including references to the following highly acclaimed references from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merican Psychiatric Press Textbook of Geriatric Psychiatry, Second Editi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Textbook of Geriatric Neuropsychiatry  
 Comprehensive Review of Geriatric Psychiatry – II , Second Edition  
 APA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Consensus Update Conference : Diagnosis and Treatment of Late-Life Depression,  
 a supplement to the Fall 1996 issue of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APA Task Force Report : Ethnic Minority Elderly  
 APA Task Force Report : State Mental Hospitals and the Elderly  
 APA Task Force Report : Selected Models of Practice in Geriatric Psychiatry

- Single User : 1997/ISBN 0-88048-922-7/\$179.95  
 Network Version(single site, up to 10 users) : \$350.00

□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ference Library(on CD-ROM)***

This CD-ROM contains the complete text, references, and graphics to many highly acclaimed books from American Psychiatric Press. Previously part of the American Psychiatric Electronic Library this CD contains DSM-IV, Treatments of Psychiatric Disorders, Second Edition, APP Textbook of Psychiatry, Second Edition, all eight published APA Practice Guidelines, and many others.

- 1997/ISBN 0-88048-818-2/CD-ROM/\$395.00  
 Network version : Call for pricing.



## • 회원동정 •

- **곽 동 일 회장**(고려의대) : 1998. 1. 26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또 Professor Shen Yucum이 회장님을 1999. 4. 12~14 IPA-Beijing Joint Meeting에 초청하셨습니다.
- **연 병 길 회원**(한림의대) : 1997. 10. 26.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주임교수로 취임하셨습니다.
- **우 행 원 회원**(이화의대) : 1998. 1. 10. 장녀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 **이 민 수 회원**(고려의대) : 1998. 2. 2. 한국치매가족회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김 승 현 회원**(고려의대) : 미국 Washington 대학에서 2년간 연수를 마치고 1998년 1월에 귀국하셨습니다.

## • 해외학회 개최안내 •

11th Annual Meeting and Symposium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AAGP)

Date 03/08/98 to 03/12/98  
Subject Geriatrics, Psychiatric disorders  
Keywords psychiatry, geriatrics, geriatric psychiatry  
Place San Diego, USA  
Phone 1(301) 654-7850  
Fax 1(301) 654-4137  
Email main@aagpgpa.org  
Contact Americ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명단 •

(1998년 2월 28일 현재)

| 성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강 봉 선 |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335 경북대학병원 정신과      | (053) 420-5752  |
| 강 봉 선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06-5 강봉선신경정신과의원      | (0371)          |
| 강 흥 조 | 충북 청주시 신봉동 146-7 충북 재활원           |                 |
| 고 대 관 | 서울 중구 저동 2가 서울백병원 정신과             |                 |
| 고 효 진 | 대전시 중구 대흥 2동 520-2 대전성모병원 정신과     |                 |
| 곽 동 일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의대 안암병원 정신과       |                 |
| 곽 태 섭 | 경남 진주시 대안동 9-7 곽태섭신경정신과의원         | (0591)          |
| 권 기 철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99-3 권기철신경정신과       |                 |
| 기 백 석 | 서울 중구 필동 2가 82-1 중앙의대부속 필동병원 정신과  |                 |
| 김 갑 중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68 한일병원            |                 |
| 김 경 식 |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1655-21 김경식신경정신과의원   |                 |
| 김 광 식 |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6-17                 |                 |
| 김 광 윤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220-4 김신경정신과의원        |                 |
| 김 규 태 | 경북 점촌시 중앙동 244-17 김규태신경정신과의원      | (0581)          |
| 김 도 관 |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삼성의료원 정신과           |                 |
| 김 도 훈 | 경기도 광주군 읍 탄벌리 696-6 연세의대 광주세브란스병원 | (0347)          |
| 김 동 욱 | 전남 목포시 산정동 97 성골름반병원 정신과          | (0631) 70-1268  |
| 김 상 국 | 인천시 서구 심곡동 산27-2 인천신경정신병원         | (032) 524-8833  |
| 김 상 덕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105-51 영진의원           | (051) 522-1571  |
| 김 성 수 | 군산시 개정동 413-3 군산개정병원              | (0654) 450-1166 |
| 김 승 기 | 경북 영주시 영주 4동 528-31 김신경정신과의원      |                 |
| 김 승 현 |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대구로병원 정신과          |                 |
| 김 영 철 | 서울 양천구 목동 911-1 이화의대 목동병원 정신과     |                 |
| 김 용 구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대안암병원 정신과          |                 |
| 김 유 광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2-9 김유광신경정신과의원      |                 |
| 김 용 희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 용인정신병원          |                 |
| 김 인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의대 안암병원 정신과       |                 |
| 김 입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00 예수병원       | (0652)          |
| 김 준 홍 |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 메리놀병원 정신과        |                 |
| 김 진 세 |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대부속구로병원 정신과        |                 |
| 김 찬 형 |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                 |

노인학대 없는 우리사회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김창현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9 국립의료원 정신과          | (02) 260-7292   |
| 김현식 | 서울시 은평구 용암동 산6 시립정신병원                | (02) 303-9111   |
| 김현우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29 단국의대병원 정신과            | (0471) 550-3929 |
| 노만희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59 백제병원              |                 |
| 류미경 | 경기 이천시 마장면 표고리 115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
| 류성훈 | 충남 논산시 논산읍 치암리 21-14 백제병원            | (0461)          |
| 문희원 | 경남 마산시 합포구 회운동 5-87 제일 신경정신과의원       | (055) 48-4845   |
| 박경우 | 충남 공주시 심판동 172 국립공주정신병원              |                 |
| 박노택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1-262 박신경정신과의원          |                 |
| 박동열 |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808-3 해운대 성심병원          |                 |
| 박동철 |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622-221 박동철신경정신과의원      | (0343) 44-3083  |
| 박민철 | 전북 이리시 동산동 144-23 원광의대 부속 제2병원       | (0653) 52-9111  |
| 박수룡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 용인정신병원             | (0335) 281-8251 |
| 박인옥 | 경기 광명시 철산4동 483-7 철산빌딩 고려신경정신과의원     |                 |
| 박인준 | 경북 구미시 구미순천향대학병원 정신과                 |                 |
| 박정수 | 서울 광진구 중곡1동 165-5 동화신경정신과            | (02) 466-7654   |
| 박종현 | 대구 중구 동산동 계명대 부속 동산병원 정신과            | (053) 250-7818  |
| 박주형 | 충주 을지로 4가 161-5 덕윤빌딩 202호 박주형신경정신과의원 | (02) 275-5722   |
| 박준현 | 전남 순천시 중앙동 61-69 박준형신경정신과의원          | (0661) 51-1053  |
| 박철산 | 서울 성동구 화양동 27-2 건국의대 민중병원 정신과        | (02) 450-9558   |
| 반건호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 (02) 958-8545   |
| 방필영 | 대구 중구 상서동 40 방필영신경정신과의원              | (053) 23-6610   |
| 배재남 |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정석빌딩 인하대학병원 정신과         |                 |
| 백명기 | 동대문구 답십리동 494-2 우창프라자 307호 백명기신경정신과  |                 |
| 백인호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 (02) 590-1378   |
| 서원벽 | 인천시 남구 주안4동 453-18 서원벽신경정신과의원        | (032) 432-9911  |
| 신상철 | 경기도 남양주군 소동면 외방리 174                 | (0346) 591-6661 |
| 신석철 |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충남대병원 정신과             | (042) 220-7287  |
| 신재정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6 청량리 정신병원             | (02) 965-1171   |
| 심상호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1동 172-22 고려신경정신과의원     | (0351) 43-7847  |
| 안병주 |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내동 202-4 청암약국             | (032) 674-7400  |
| 안창호 |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42-3 한창학신경정신과의원        | (02) 928-7878   |
| 연규월 | 서울 종로구 6가 70 이대부속병원 신경정신과            | (02) 760-5086   |
| 연병길 | 서울 강동구 길동 445 강동성심병원 정신과             | (02) 224-2268   |
| 오강섭 | 서울 종로구 평동 108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 (02) 739-3211   |
| 오길성 |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291-1 오길성신경정신과의원       | (02) 923-3237   |
| 오병호 | 경기도 광주군,읍 탄벌리 696-6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       | (0347) 65-0442  |
| 오봉주 | 광주시 북구 운암동 90-33 청안빌딩 오봉주신경정신과의원     |                 |
| 오석환 |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아파트 54-501             | (02) 599-8486   |
| 왕성근 |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충남대병원 정신과             |                 |
| 우정훈 |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5 울곡병원                | (051) 861-8111  |
| 우종인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병원 정신과             | (02) 760-2458   |
| 우행원 |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70 이화대학병원 정신과           | (02) 760-5138   |
| 유계준 | 경기도 광주군,읍 탄벌리 696-6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       | (0347) 61-1890  |
| 유완상 | 충북 청주시 문화동 106-4 유완상 신경정신과의원         | (0431) 52-7895  |
| 유원달 | 충남 보령시 대천동 192-1 성심신경정신과의원           |                 |
| 윤영창 |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9-4 윤신경정신과의원           |                 |
| 윤애리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5 보성프라자 3층 윤정신과의원      |                 |
| 은홍배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산 2-20 전북대학병원 정신과     |                 |
| 이경규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 단국의대병원 정신과           | (0471) 550-3929 |
| 이경섭 |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9 화성프라자 4층 이경섭신경정신과    | (0334) 915-8834 |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이근후 |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70 이화의대 동대문병원 정신과      | (02) 760-5138   |
| 이기준 | 경남 진주시 동산동 213-16 진주신경정신과           | (0591) 411-4228 |
| 이민수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려의대 안암병원 정신과   | (02) 920-5354   |
| 이병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11 성모신경정신과의원      | (0551) 83-7373  |
| 이상언 | 서울 종로구 평동 164 서울직접자병원 정신과           | (02) 398-9700   |
| 이상열 | 전북 익산시 동산동 144-23 원광의대 부속병원 정신과     | (0653) 840-6019 |
| 이성민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구 112-37 이성민신경정신과   | (0475) 33-5435  |
| 이수일 |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548 강남성심병원 정신과         | (02) 833-3781   |
| 이영호 | 서울 중구 저동 2가 85 서울백병원 정신과            | (02) 270-0063   |
| 이인표 | 서울 송파구 송파2동 185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
| 이정호 |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 인제외대 상계백병원 정신과    | (02) 938-0100   |
| 이종섭 | 충북 충주시 교현동 620-5 건국의대 부속병원 정신과      | (0441) 845-2501 |
| 이종욱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722-5 이중욱신경정신과       | (0551) 55-6688  |
| 이창영 | 부산시 북구 학장동 164 부산대남병원               | (051) 324-2227  |
| 이철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 (02) 590-1533   |
| 이충경 |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 (02) 204-0100   |
| 이충숙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68 대전한일병원 정신과        | (042) 625-3001  |
| 이헌재 |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7 북창빌딩 2층 이헌재정신과의원    | (02) 735-7557   |
| 이홍식 |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영등세브란스병원 정신과      | (02) 3450-2381  |
| 이형영 | 광주시 동구 학동 8 전남대학병원 정신과              | (062) 227-0011  |
| 이희상 | 경기도 광주군,읍 탄벌리 696-6 광주세브란스병원        | (0347) 61-1890  |
| 임원정 | 서울 종로구 6가 70 이화대학병원정신과              | (02) 760-5210   |
| 전진숙 | 부산시 서구 압남동 34 고신의료원 신경정신과           | (051) 240-6245  |
| 장덕환 | 수원시 팔달로 2가 129-5 장덕환신경정신과           | (0331) 47-0555  |
| 장안기 |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 (02) 204-0107   |
| 정상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20 전북대학병원 정신과      | (0652) 250-1894 |
| 정성덕 | 대구시 남구 대명5동 317-1 영남대학병원 정신과        | (053) 620-3340  |
| 정은기 |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 (02) 204-0104   |
| 정인과 |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           | (02) 818-6738   |
| 정한용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순천향대학병원 정신과          | (02) 709-9230   |
| 조남현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501 국립나주정신병원         | (0613) 30-4114  |
| 조두열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병원 정신과             | (02) 760-2457   |
| 조맹제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병원 정신과             | (02) 760-3155   |
| 조성남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 법무부 치료감호병원       | (0416) 857-2601 |
| 조숙행 |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           | (02) 864-5111   |
| 조완숙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157 박종철신경정신과의원        | (02) 735-0987   |
| 지익성 |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충남대병원 정신과            | (042) 220-7291  |
| 채정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가톨릭대학 성모병원 정신과      | (02) 789-1250   |
| 최문식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6 청량리 정신병원            | (02) 965-1171   |
| 최인근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 한강성심병원 정신과      | (02) 639-5460   |
| 최종혁 |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 (02) 204-0357   |
| 최중철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603-11 용산빌딩 3층 최중철신경정신과 | (0339) 73-9966  |
| 한상우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순천향의대 정신과            | (02) 709-9230   |
| 한상엽 | 서울 종로구 평창동 244-25 한상엽신경정신과의원        | (02) 732-2662   |
| 한선호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순천향의대 정신과            | (02) 709-9231   |
| 한일우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 용인정신병원            | (0331) 281-8251 |
| 한창학 |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42-3 한창학신경정신과의원       | (02) 928-7878   |
| 한몽진 | 경기 남양주군 소동면 외방리 174 축령복음병원          | (0346) 591-6661 |
| 홍관화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775 명지대 새마음병원신경정신과     | (02) 364-8251   |
| 황연화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565 보건소                 | (0336) 72-4518  |
| 황익근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전북대병원 정신과        | (0652) 250-1390 |





1997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전공의 워크샵  
(일 시 : 1997년 4월 11일(금))